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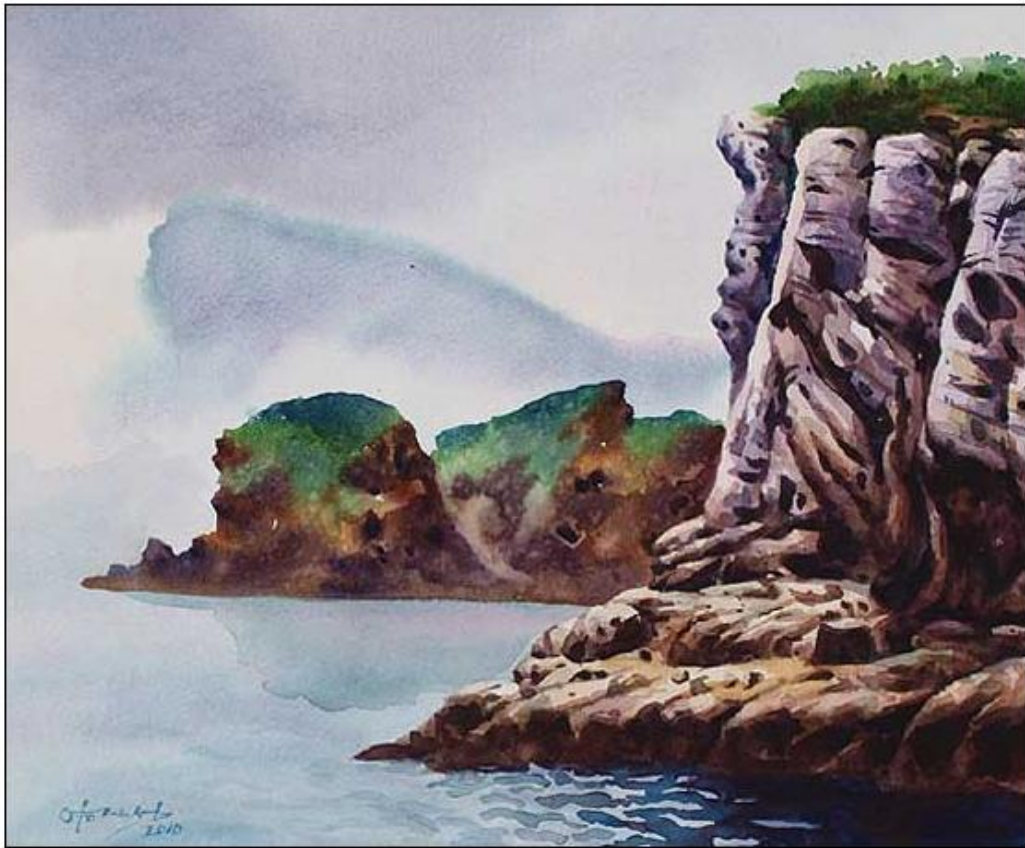
물빛 머금은 차귀도, 잠녀, 그리고

해녀박물관 수채화가 양근석 초대전 9월 30일까지

등록 : 2011년 08월 26일 (금) 09:37:26

최종수정 : 2011년 08월 26일 (금) 09:37:26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 양근석 작

'섬'은 작가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한다. 가까이 또 멀리, 다양한 표현법으로 더듬고 또 다듬어간다. 오랜 세월 바다와 부대끼며 뭉툭해진 섬의 가슴은 늘 열려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풀어내지는 않는다. '혹시나...' 섬 스스로 만들어낸 피해의식이다.

그렇게 물빛을 머금은 '제주'를 놓지 않았던 화가가 제주해녀박물관을 찾았다.

이야기가 많은 섬 '차귀도'와 제주 바다의 어머니 잠녀를 동행했다. 수채화가 양근석 작가의 초대전이 9월 30일까지 해녀박물관 로비를 물빛으로 채운다.

투명한 파문(波紋), 물색이 빚어낸 흐름은 그대로 전설을 만든다. 섬을 감아 도는 세찬 물살이며, 깊은 바다를 헤집고 끄집어내는 깊고 서글픈 숨비 소리까지 작가의 붓끝은 그 섬세한 감정선에 충실하다. 거칠고 투박하기보다 청명한 포스를 지닌 수채화 특유의 매력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눈앞에 걸린 것은 양 작가의 작품 15점이지만 마음 속에 맴도는 것은 차귀도와 그 주변의 아름다움, 제주의 삶을 대변하는 잠녀의 존재감이다.

한편 제주해녀박물관은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박물관 로비에서 해녀 노래 공연을 펼치고 있다. 문의=710-7774, 고 미 기자 popmee@jemin.com